

세경본풀이의 특정 문화요소 번역전략 사례연구*

양세정**

Sejung Yang (2024). A case study on translation strategies for culture-specific items in Segyeong Bonpuri. This paper aims to identify and categorize cultural elements in the Jeju shamanic myth of Segyeong Bonpuri as a source of potential translation challenges and to examine effective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addressing these challenges. Adopting the concept of culture-specific items (CSIs) as proposed by Aixelá (1996) and Newmark (1988, 2010), the study focuses on the translation strategies of conservation and substitution.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source text contains various CSI categories, including ecology, material culture, social culture, spiritual culture, public culture, idiomatic expressions, gestures, and habits. To preserve the original meaning and context, techniques such as orthographic adaptation, linguistic translation, extratextual gloss, and intratextual gloss can be applied. Alternatively, viable options to enhance familiarity for readers in the target culture may include techniques like synonymy, limited or absolute universalization, naturalization, autonomous creation, or dele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translating Jeju regional myths in order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growth of Korean studies and aims to offer insights for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Keywords: Jeju shamanic myths, culture-specific items, conservation, substitution, *Segyeong Bonpuri*

주제어: 제주 무속신화, 특정 문화요소, 보존, 대체, 세경본풀이

* 본 논문은 2023년 BK21 국제학술대회(중심과 주변, 그 해체와 탈구축의 실험: 트랜스 시대 한국어와 한국문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서론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국문학 번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번역의 활성화는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한국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독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번역 작품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학 전반의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학작품의 영문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지역 문화에 기반을 둔 무속신화 번역이다.

무속신화는 단군신화와 같은 기록신화가 아닌 무당이 굿을 하면서 전승된 구전신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며 변화를 겪고 여러 이본이 생겨났다. 그리고 몇몇 연구자와 기관에서 대표적인 줄거리나 단순화된 이야기로 번역되고 출판된 사례(김순이 2002)가 있긴 하지만 무당이 부르는 신화의 전체 채록본이 외국어로 출판된 사례는 전무하다. 다만, 류(Ryu 2016)의 석사 논문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세경본풀이(즈청비 신화)가 영어로 번역된 사례가 존재할 뿐이다. 류의 번역본은 무당(안사인)의 채록본 전체를 영역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여전히 실제 출판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반해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단군신화는 삼국유사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변형이 없으며, 한국의 민족적·국가주의적 정통성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정받아 왔다. 몇몇 번역본에 대한 오역과 해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2010년 기준으로 1911년부터 약 16권의 번역본이 출판되었다(오윤선 2010: 67)는 점에서 한국 신화 번역 역사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수 있다.

국내에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이다. 특히 곳에서 불리는 무속신화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허남춘(2011)은 제주 신화가 그리스·로마 신화보다 더 방대하고 깊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영수(2020)는 본 연구와 관련된 농경의 신인 즈청비가 구체적인 특징은 다르지만, 그리스 신화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대지 및 초목 성장의 여신 데메테르와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최영숙(2002)은 제주도 무속신화는 한국의 문화이면서 동시에 국문학에서 텍스트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자료라고 언급하며 한국문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내는 데 무속신화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화 번역이 미미한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신의 이야기가 곁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 즉 무가에 담겨져 있어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곁은 오랫동안 미신으로 치부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도덕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무속신앙을 “음사(淫祀)”, 즉 부정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로 간주하며 탄압했다(임재해 2006: 100-101). 일제 강점기에는 한반도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곁판을 강제 해산하고 무당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으며(조흥운 2004: 9), 근대에는 기독교 문화의 확산과 새마을 운동의 전개로 무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되었다(문무병 2001: 16). 이로 인해 무당이 부르는 노래 속 신화는 일반 대중이 접하기 어려워졌고, 연구자들의 전유물처럼 연구 대상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무속을 한국의 전통문화로 보존하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먼저 UNESCO(n.d.)는 2009년, 제주도의 ‘칠머리당 영등굿’(바람의 신 영등신에게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굿)을 인류무형유산(World Intangible Heritage)으로 등재시켰으며, 한국의 국가유산청(n.d.)에서도 ‘서울새남굿’(서울에서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굿)을 포함한 다양한 굿을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무속신화 번역이 미미한 또 다른 이유는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문학 번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원천텍스트가 한국어인 번역물은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영어권 또는 중국,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권오숙 2014). 더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n.d.)이 매해 발표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국내 문학작품의 출판수는 약 7,000개에서 12,000개 사이로 방대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외국어로 번역되는 비율은 1~3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번역되는 문학 장르는 시, 소설, 수필/산문, 평론/인문연구서, 희곡/시나리오, 기타로 구분된다(문예연감 n.d.). 여기서 신화가 주로 다뤄지는 고전문학은 기타에 속하여 무속신화가 외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될 확률은 더욱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무당이 부르는 노래 속 어휘와 표현이 현대 표준 한국어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번역의 어려움이 큰 것도 무속신화 번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무속신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외국어와 같은 제주어뿐만 아니라, 한반도와는 다른 전통 신앙, 문화, 자연환경, 역사 등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주도 출신이 아닌 번역가가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장르이고 원문 이해 및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심지어 김현선(2023)은 제주어를 이해하는 현지인이 아닌 이상, 제주도 무속신화의 내용을 섬세하고 정감 있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류(2016)의 석사 논문 속 감사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류는 번역 과정에서 제주어와 제주본풀이에 대한 도움을 제주 지역 전문가인 강소전 박사에게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속신화의 번역은 한국의 신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학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록신화인 그리스·로마 신화가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온 것처럼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제주도 무속신화 또한 충분히 다양한 외국어로 출판될 가치가 있다. 제주 출신 언어학 연구자로서 제주도 무속신화 속 독특한 문화를 번역하기 위한 전략과 기법을 탐구하기 위해 제주도에 가장 잘 알려진 ‘세경 본풀이’ 즉 ‘즈청비 신화’의 번역 사례를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주 무속신화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보다 많은 번역가들이 무속신화 번역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제주도 무속신화 세경 본풀이(즈청비 신화)

2.1. 제주도 무속신화

제주도에는 일만 팔천 신이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특별한 숫자는 시왕맞이¹⁾라는 곳에서 심방이 “일만팔천신전님 [...] 다 청하였습니다”(문무병 2015a)²⁾ 라고 언급하는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많은 신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자연현상과 일상생활을 관장하는 ‘일반신’,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인 ‘당신’, 그리고 개인 가정 내에 전해져 오는 ‘조상신’으로 나눌 수 있다

1) 시왕은 저승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지칭한다(김현선 외 2020: 421).

2) 시왕맞이 곳에서 무당은 ‘차사본풀이’를 부르는데, 이 본풀이는 저승차사(사자)인 강림이 어떻게 저승사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력을 풀어낸다. 그리고 이는 영화 ‘신과 함께’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황인순 2015).

(현용준 1982; 현용준 1992). 지금까지 이 모든 신을 일일이 나열한 연구는 없지만, 1995년 기준 제주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557개였다는 점(오성찬 1995: 186)을 고려하고, 각 마을마다 2명의 수호신을 각각 모시는 당이 2개라고 가정한다면, 신의 수는 천 개를 훌쩍 넘는다.³⁾ 그리고, 조상신의 경우 제주도의 각 가정을 모두 조사한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신이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제주의 무속신화는 살아있는 신화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아직도 굿이라는 의례에서 많은 신화가 불리고 있고, 단골(신앙민의 제주어)들의 믿음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강소전 2018). 제주도의 굿은 규모에 따라 ‘큰굿’, ‘족은굿’, 그리고 ‘비념’으로 나뉜다(장주근 2001: 62). 족은굿과 비념은 등장하는 신의 수가 작고, 하루만에 끝나는 데 반해 큰굿은 그 규모가 크고, 4-5명의 심방(무당의 제주어)이 참여를 하고, 호명되는 신의 수도 100명에 이르기 때문에 3-4일 이상이 소요된다(현용준 1992: 20; 현용준 2007: 20). 또한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춤과 췌상 차림도 다양하게 변한다(장주근 2001: 62). 이러한 큰굿에는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인 대별왕과 소별왕, 출산을 관장하는 삼승할망, 해와 달의 신, 무조신인 초공 3형제, 서천꽃밭의 꽃을 관장하는 이공신, 전생의 업보를 관장하는 삼공신, 저승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신(시왕), 저승차사 강림, 농업의 신(세경), 문신(문의 신), 조왕할망(부역의 신), 축신(화장실의 신), 고팡(식량, 물건보관하는 방)의 신’ 등 다양한 일반신들이 등장한다(장주근 2001: 62-63).

이렇게 많은 살아 숨 쉬는 신들의 이야기는 1930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학자들이 수집하기 시작했고, 1950년부터는 한국인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수집되고 연구되어 왔다(강소전 2018). 그 중 진성기는 500편의 신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를 1968년 『남국의 무가』로 출판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제주도의 헌신적인 몇몇 신화 연구자들은 굿판에서 심방의 노래를 녹음하고 채록하는 힘들지만 아주 중요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허남춘(2011)은 제주도에 무속신화가 왕성한 이유를 지정학적인 이유로 설명한다. 즉 제주는 한반도와 떨어진 섬으로 불교와 유교의 영향력이 미약했고, 특히 고려말 고려에 복속되기 전까지 탐라국(? - 1404)으로 불리며 한반도의 통치하에 있

3)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던 제주도의 당은 조선시대 중앙정부에서 부임한 목사에 의해 129개가 불타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모습은 그 시기에 그려진 ‘탐라 순력도’라는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오창명 2014: 461). 그리고 일제 시대와 4-3 사건, 새마을 운동 시기를 거치며 많은 당이 사라졌을 것으로 본다.

지 않았고, 원시 시대 부족 공동체 사회에서 생겨난 무속이 중세(고려, 조선)를 거치면서도 민중의 믿음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무속 안에 불교와 유교가 융합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비추어 허남춘은 제주도의 무속신화를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관점이 아닌 제주도의 독자적인 문화의 형태로 간주하고, 한국 속 하위 또는 변방의 문화가 아닌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문화로서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주도의 신화는 ‘본풀이’, ‘무가 본풀이’, ‘서사무가’, ‘구비서사시’, ‘무속서사시’, ‘구전서사시’, 그리고 ‘무속신화’ 등 다양하게 불린다(김현선 외 2020: 21; 장주근 2001: 54; 진성기, 1980; 허남춘 2011: 26; 최영숙 2002: 1). 이 중, 본(本)풀이는 신이 어떻게 태어나고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신이 되었는지 그 내력을 풀어낸다는 뜻이다. 심방은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신의 본을 풀네다”라고 시작한다(조영배와 강정식 2000: 79; 현용준 1992: 17; 현용준 2007: 267; 장주근 2001: 43).⁴⁾ 다시 말해, 무기는 심방이 굿이라는 의례 안에서 부르는 노래고, 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본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단골들은 신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 줄 때 기뻐하고 의기양양해진다고 믿는다(장주근 2001: 43). 이에 반해 한반도에서는 ‘-굿, -풀이, -말미’라고 하여 제주도와 같이 ‘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장주근 2001: 43).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제주도의 무속신화 중 농경의 신인 세경(즈청비)의 내력을 풀어내는 ‘세경본풀이’를 채택하고, 원천 텍스트로 진성기(1980)의 『남국의 무속 서사시 - 세경본풀이』를 사용한다. 세경본풀이를 채택한 이유는 아래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2.2. 세경본풀이(즈청비 신화)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신의 이름은 즈청비로 농경(또는 풍요, 사랑, 땅)의 신이다. 즈청비 신화는 서사구조가 정교하고 다른 무속신화에 비해 이야기의 전개가 매우 흥미롭다고 평가받고 있다(김선희 2003: 127). 특히 진성기의 채록본은 모든 중요한 서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이본들에 비해 그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제

4) 제주어 사전에서는 ‘본풀이’를 “제주 무속에서 신의 내력인 근본을 풀어 알리는 무가. 신의 내력담을 읊으며 축원하는 제사의 이름”으로 정의하고 있다(송상조 2007: 351).

주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듬감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아 왔다(김선희 2003; 박경신 1986).

즈청비 신화가 담긴 세경본풀이는 1년간의 행운과 풍농을 비는 곳(멩갸)과 큰곳의 제차에서 심방이 젓상 앞에 앉아 장고를 치면서 부른다(조영배와 강정식 2000: 15; 현용준 2002: 192). 세경은 제주어로 “넓고 큰 들 또는 땅”이란 의미가 있고, 농경의 신을 부르는 즈청비의 또 다른 이름이다(송상조 2007: 414; 진성기, 1980: 177; 현평효 외 2009: 517). 세경본풀이의 주인공은 바로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즈청비로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농경의 신이 된다. 언제부터 즈청비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도 심방들이 곳에서 구연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화 중 하나다(좌혜경과 최원오 2018: 85).

하지만 무속의례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살아있는 신화라는 명칭은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신화의 보전과 연구, 활용 그리고 정책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영문번역을 통해 세계에 알리는 방법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그동안 전무했다. 더 나아가 즈청비 신화는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불려지지 않고 제주도에서만 향유되어왔기 때문에(박경신 1986: 283; 장주근 2001: 65; 최영숙 2002: 7) 본 신화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더 필요하다. 먼저, 즈청비 신화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식을 기다리던 김진국과 조진국 부부에게 딸이 태어나는데, 즈청비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즈청비가 자라 우연히 문도령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문도령의 부모(하늘의 옥황)의 반대로 인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즈청비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문도령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죽은 하인과 문도령을 살려내고, 전쟁에서 싸워 이기면서 문도령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아 곡식의 씨앗을 받고 농경의 신(세경)이 된다.”

즈청비 신화의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음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세경본풀이를 한국 고전 100선으로 지정하고 있다(한국학진흥사업단 2021: 21). 또한 2019년 EBS 교육방송이 제공하는 고등학생 수능특강 국어 과정의 고전산문 부분에 세경본풀이와 관련한 문제를 처음 제시하였다. 이것은 공교육에서 무속신화를 문학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EBS 교육방송 2019: 114-151). 즈청비라는 이름은 문학 외적인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먼저 2017년에는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2022a)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세레스(Ceres)에서 관측된 여러 구덩이(crater)들 중 하나에 자청비(Jacheongbi)라는 이름을 부여했다.⁵⁾ 국제천문연맹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을 인용하여 자청비를 “Korean Earth goddess who brought 5 grains to Jeju Island, and began agriculture”, 즉, 오곡을 제주도에 들여와서 농경을 시작한 한국의 지신(地神)으로 소개하고 있다.⁶⁾

자청비 신화의 영역본의 목표 독자는 다음과 같이 가정해볼 수 있다. 해외의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출판될 수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위해 출판할 수도 있다. 잠재적 독자층은 원어민과 비원어민을 모두 포함하는 영어 사용자들 중에서도 한국학 연구자와 학생이며, 고전문학, 구비문학, 서사문학, 종교, 무속신앙, 신화, 인류학, 민속학 등 다양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청비라는 제주 무속신화 사례를 통해 특정 문화요소를 어떻게 범주화하여 번역할 수 있는지 적용 가능한 번역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3.1. 특정 문화요소(Culture-Specific Items)

문학 번역에서 주된 어려움 중 하나는 원천 문화와 목표 문화 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원천텍스트에는 원천 문화원천 문화원천 문화원천 문화를 대표하는 특정 문화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목표 문화와 크게 다를수록 번역 과정에서의 난이도도 그만큼 증가할 수 있다(Aixelá 1996: 53). 이때 번역가는 그 차이를 중재하기 위해 원문을 조정하면서 문학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Bassmett 2007: 14). 즉 번역가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5) 제주어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아래아(·)가 노년층에서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원천텍스트에서도 아래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공공 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아래아 입력이 되지 않는 경우, 또 어려운 발음으로 인해 아래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청비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6) 자청비라는 이름이 붙여진 배경에는 소행성의 이름이 로마의 농경의 여신 세레스(Ceres)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자청비 이외에도 하와이, 일본, 이집트, 멕시코 등 아주 많은 나라의 농경과 관련된 신들의 이름이 세레스 행성의 각 부분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국제천문연맹 2022b).

능동적으로 목표 문화의 독자들이 원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번역전략과 기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마크(Newmark 1988: 94)는 문화를 “특정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는 공동체 특유의 삶의 방식이며 그 표현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문화적 언어’는 ‘보편적’이고 ‘개인적’인 언어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die, live, star, swim, mirror, table’ 등은 보편적이어서 번역에 큰 문제가 없지만 ‘Monsoon(우기), steppe(유럽과 시베리아의 초원), dacha(러시아의 시골 주택)’와 같은 단어들은 ‘문화적 단어(cultural words)’이기 때문에 목표 문화에 이와 관련한 비슷한 문화가 없다면 번역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아이셀라(Aixelá 1996: 56, 65)는 이러한 문화적 단어를 ‘특정 문화요소’라고 정의하고 번역가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먼저 특정 문화요소가 원문에서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텍스트를 파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목표 문화에 이와 대응하는 문화가 있는지 이미 정착한 번역이 있는지, 목표언어 문화 내에 어떤 특별한 언어규범이 있는지 잠재적 독자층은 누구인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자들은 또한 다양한 종류의 특정 문화요소를 범주화한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마크는 각각 시기를 달리한 연구에서 조금 다른 문화요소의 범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1988년도에는 ‘생태, 물질문화, 사회문화, 기관 및 관습, 몸동작과 버릇’ 등의 범주를 제시했으며, 2010년도에는 ‘생태, 공공생활, 개인생활, 관습, 개인적 열정’ 등으로 범주화했다. 즉 같은 연구자라 할지라도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범주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Nemark(1988, 2010)의 특정 문화요소 범주

	뉴마크(1988: 95)	뉴마크(2010: 174-177)
범주	생태(식물, 산, 바람, 바다, 등)	생태(지질, 지리 환경)
	물질문화(음식, 의복, 교통, 집, 도시 등)	공공생활(정치, 법, 정부 등)
	사회문화(일, 여가 등)	개인생활(의, 식, 주 등)
	기관, 조직, 관습, 절차, 개념(정치, 행	관습(미신, 관용어 등)

	정, 종교, 예술)	
	몸동작, 버릇(침 뺏기 인사, 손짓)	개인적 열정(종교, 음악, 시, 예술 등)

한편 국내 연구자 가운데 이근희(2003)와 양창현(2015)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유 명사, 문화 어휘, 관용구, 단위, 관습적 표현’ 등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하지만 권병철(2016)은 다양한 문화요소들을 ‘단순 문화 특정적 요소’로 1차적 분류를 하고 다시 뉴마크(1988)의 범주를 차용하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요소들을 ‘집중 문화 특정적 요소’로 재분류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표 2. 이근희(2003), 양창현(2015), 권병철(2016)의 특정 문화요소 범주

	이근희(2003: 7), 양창현(2015: 17)	권병철(2016: 38-39)	
범주	고유명사 (인명, 건물명, 조직명, 서명)	단순 문화 특정적 요소	계급 행정기관 및 직책, 국가제도 화폐와 도량형 일상 음식
	특정 문화와 관련된 어휘 (의, 식, 주, 지역, 사회, 관습)		
	관용구		
	도량형 단위 (화폐, 거리, 높이, 중량 등)		
	관습적 표현 (지위, 직위, 인명, 날짜 표기 등)	집중 문화 특정적 요소	생태 물질문화 사회문화 기관, 조직, 관습, 철학, 개념 몸동작, 버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주는 연구자마다 다르고 그 내용과 양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Amenador and Wang 2022: 2).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를 어떤 제한적인 범주에서 파악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문화권이더라도 작품의 내용에 따라 그에 맞는 범주가 달라질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기본 범주를 정하고 그 외에 유동적인 것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범주를 바탕으로 본 무속신화 번역을 위한 변형된 범주를 제공한다(아래 표 4 참조).

3.2. 특정 문화요소의 번역전략

3.2.1. 특정 문화요소 번역의 다양성과 문제

이미 출판된 번역본을 살펴보면, 동일한 특정 문화요소가 번역가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독자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원천 문화의 왜곡을 초래하기도 한다. 제주도의 역사적 사실인 4·3사건에 기반한 현기영(1978)의 소설 『순이삼촌』은 현재까지 ‘Aunt Suni’(송중도 역 2008), ‘Sun-i Samch’on’(이정희 역 2012), ‘Oncle Suni’(Uncle Suni)(Bourdin & Kim 역 2021)로 번역되었다. 이 제목에서 특정 문화요소는 ‘삼촌’으로 번역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촌’의 표면적 언어대응은 남성을 지칭하는 ‘uncle’이다. 왜냐하면 표준한국어에서 삼촌은 남성을 지칭하고, 영어권 문화에서도 uncle은 남성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삼촌에 반대되는 표준한국어는 ‘이모, 고모’가 있으며 이는 ‘aunt’로 번역될 수 있다. 즉 남, 녀 구별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지역에서는 친척 또는 나이가 많은 여성과 남성을 모두 ‘삼촌/삼촌’이라 부른다(제주일보 2018; 송상조 2007: 394). 이런 점에서 제주 지역어와 영어의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번역가는 번역에 앞서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다양한 번역 전략을 통해 강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독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불어 번역본의 제목에 남성을 지칭하는 ‘oncle’로 번역한 것은 제주에서 삼촌/삼촌의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번역가의 숨겨진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불어 독자가 이 제목을 보았을 때 ‘Suni’라는 인물이 남성일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또한 음차번역을 한 Samch’on 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독자에게는 남성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제주문화의 번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쌍에서 문화 번역을 다룬 연구들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중국 청나라 시기의 고전 소설인 『홍루몽』에 나타난 음식의 이름 ‘茄蚶’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례를 살핀 연구에서 7개의 출판사에서 이 음식이 완전히 생략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번역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중에 연구자는 ‘가지오가리, 가지 안주, 가지절임, 가지 말랭이’를 적절한 번역으로 간주하고 그 외에 ‘가지에다 고기 넣어서 만든 것-가지전, 가지에다 고기 넣어서 만든 것 - 저나(얇게 저민 재료에 밀가루를 묻히고 달걀 푼 것을 썩워 기름에 지진 음식)’는 적절하지 않은 오역이라고 지적했다(김천향 2021: 25).

그리고, 제이 케이 롤링(J. K. Rowling)의 해리 포터(Harry Potter)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한 사례 연구에서는 번역가가 원천 문화의 특정 문화요소를 그대로 보존하는 이국화와 목표 문화로 대체하는 현지화 전략에 대한 양적 연구를 진행했다(Yuliasri and Allen 2014). 그 결과, 호칭어를 번역할 때 외국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으며, 그 외는 현지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Professor’와 같은 호칭은 이미 인도네시아 독자들에게 익숙한 호칭이기 때문에 ‘Professor’로 차용 번역되었다(Yuliasri and Allen 2014: 138). 하지만 영국음식인 ‘bacon, gravy, Yorkshire pudding’은 ‘daging asap, kaldu, puding’ 등 인도네시아 음식으로 단순화 되어 표현되어서 원문의 의미가 사라진 예를 보여준다(Yuliasri and Allen 2014: 140-141).

특정 문화요소의 번역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예는 성서의 번역이다. 특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the Lamb of God’(하느님의 어린양)을 ‘양’이라는 동물이 없는 지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북극의 이누잇족(Inuit)의 성경에 이를 ‘the Seal of God’으로, 파푸아뉴기니족을 위한 성경에는 ‘the Pig of God’으로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에 따라 ‘양’을 다른 동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다(Aixelá 1996: 57-58; Westfall 2016: 903).

3.2.2. 아이셀라(1996)의 번역전략: 보존과 대체

앞서 언급한 문화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번역 전략은 크게 보존(conservation)과 대체(substitution)로 구분할 수 있다(Aixelá 1996: 60-64). 보존 전략은 원천 텍스트의 특정 문화요소를 가능한 그대로 보존하면서 목표 문화에서 이를 외국적인 요소로 받아들여 번역하는 방법이고, 대체는 이들을 목표 문화에 대응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Kuleli 2020: 624-625). 보존은 원천 텍스트의 문화적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여 원천 문화의 차이를 보존하는 번역 전략으로, 목표 독자들이 원천 문화의 ‘다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지만, 목표 문화의 독자들에게는 텍스트가 덜 친숙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Aixelá 1996: 54, 61-62).

반면에 대체는 특정 문화요소의 반복을 피하고 문체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어나 유사한 참조로 바꾸는 번역 전략으로 목표 텍스트에서 유창함과 가독성을 유지하면서 원천 텍스트의 뉘앙스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Aixelá

1996: 63-64). 그렇기 때문에 목표 문화의 독자는 쉽게 번역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고, 텍스트 이외의 추가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원천 문화의 독특함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요약하면, 보존은 원천 문화의 맥락과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법이고, 대체는 외국적인 느낌을 제한하고 좀 더 목표 문화에 친숙하게 번역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 보존과 대체 전략을 다시 세분화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Aixelá 1996: 60-64). 그리고 세부 설명은 표 아래에 기술한다.

표 3. 보존과 대체(Aixelá 1996: 60-64)

보존(Conservation)	대체(Substitution)
1) 반복(repetition)	6) 동의어 사용(synonymy)
2) 표기 조정(orthographic adaptation)	7) 제한적 일반화(limited universalization)
3) 언어적 번역(linguistic translation)	8) 절대적 일반화(absolute universalization)
4) 텍스트 외적 해설(extratextual gloss)	9) 토착화(naturalization)
5) 텍스트 내적 해설(intratextual gloss)	10) 자율적 창작(autonomous creation)
	11) 생략(deletion)

1) 반복

반복은 원천텍스트의 언어가 달라도 목표어의 문자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원천텍스트의 지역명인 ‘Seattle’이나 ‘Washington D.C.’를 목표어 사용자가 원어 사용자와 같은 맥락과 의미를 상상하지 못하고 생경하더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Aixelá 1996: 61; Kuleli 2020: 624).

2) 표기 조정

표기 조정은 전사(transcription)와 음역(transliteration)을 포함하는 기법으로 원어와 목표어의 문자가 다른 경우에 목표어의 문자를 차용하여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 표기하는 기법이다(Aixelá 1996: 61; Kuleli 2020). 과거에는 영어의 원문 텍스트의 ‘Kemidov’라는 러시아 이름을 스페인어 번역에서 ‘Kemidof’로 번역하기도 했다(Aixelá 1996: 61). 즉 ‘v’라는 음소가 없는 스페인어 화자가 보다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f’로 바꾼 것이다.

3) 언어적 번역

아이셀라(1996: 61-62)에 의하면 언어적 번역은 비문화적(non-cultural) 번역 기법으로, 원어와 유사하거나 상응하다고 인식되는 목표어의 단어나 표현으로 옮기는 기법이다. 즉 문자 그대로 명시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Grand Jury’를 ‘gran jurado’로 번역하는 경우 스페인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이라는 맥락에서 독자가 이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번역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Aixelá 1996: 62).

4) 텍스트 외적 해설

텍스트 외적 해설은 위에서 언급한 기법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설명과 함축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각주나 주석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Aixelá 1996: 62).

5) 텍스트 내적 해설

텍스트 내적 해설은 독자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뜻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텍스트 내에 뜻을 덧붙이는 해설이다(Aixelá 1996: 62). 예를 들어, ‘five feet eight’를 ‘cinco pies con ocho pulgadas’(five feet and eight inches)로 번역하는 것은 스페인어 독자에게 원천 텍스트에 없었던 ‘inch’라는 의미의 ‘pulgadas’를 추가하여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6) 동의어 사용

특정 문화요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낼 때 동의어 또는 묘사적으로 풀어서 번역하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acardi’(바카디)는 스페인식 럼을 만드는 회사이면서 럼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때 바카디를 ‘Bacardi, liquor of sugarcane, rum’ 등 세 가지로 각각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Aixelá 1996: 63).

7) 제한적 일반화

목표어 독자에게 특정 문화요소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 이와 뜻이 비슷하고 목표 문화에 더 잘 알려진 더 쉽고 문화적 가중치가 낮은 단어나 표현으로 대체하는 기법이 제한적 일반화이다(Aixelá 1996: 63). 예를 들어, ‘an American football’을 ‘un balon de rugby’(럭비공)로 번역하는 방법이다(Aixelá 1996: 63).

8) 절대적 일반화

절대적 일반화는 위의 제한적 일반화와 같은 상황이지만, 목표 문화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나 표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완전히 외국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완벽하게 중립적인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기법이다(Aixelá 1996: 63). 예를 들어 ‘beer’를 아랍어로 ‘شرب,’ 즉 ‘음료(drink)’로 번역한다거나(Aljabri 2020: 15), ‘corned beef’를 스페인어로 ‘Lonchas de jamón’(햄 슬라이스)로 번역하는 것과 같다(Aixelá 1996: 63).

9) 토착화

토착화는 원천텍스트의 특정 문화요소를 목표어의 독자가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화폐 단위 ‘dollar’를 스페인 문화에서 사용되는 ‘duro’로 번역하는 것이다(Aixelá 1996: 63).

10) 자율적 창작

번역가가 원천텍스트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롭게 창작하여 넣는 기법이다(Aixelá 1996: 64). 예를 들어, ‘go to Constantinople?’을 ‘que vayamos a Constantinopla en busca del verdadero halcón del rey de España?’(shall we go to Constantinople in search of the real falcon of the king of Spain?)로 번역하는 것은 작품에서 중요한 스페인 왕의 때, ‘the real falcon of the king of Spain’을 번역가가 창의적으로 추가한 것이다(Aixelá 1996: 64).

11) 생략

아이셀라(1996: 6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원천텍스트의 특정 문화요소를 목표 텍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다. 먼저 a)특정 문화요소가 목표어 문화에서 이념 또는 문체적인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고려될 때, b)독자가 내용을 이용하는데 중요하지 않을 때, c)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주석 등을 포함할 수 없는 경우, 번역가는 생략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ark Cadillac sedan’을 ‘Cadillac oscuro’(어두운 캐딜락)로 번역하는 것은 ‘Cadillac’이 자동차 브랜드이지만 이 단어 자체만으로 자동차를 상징하기 때문에 ‘sedan’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Aixelá 1996: 64).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아이셸라와 뉴마크의 ‘특정 문화요소’ 개념을 차용하여 즈청비 신화 번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독특한 문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번역전략과 기법을 탐색한다. 이 때, 특정 문화요소의 범주는 뉴마크(1988, 2010)의 범주를 기본으로 하여 이근희(2003)와 양창현(2015)의 연구에서 언급한 범주를 추가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범주의 예는 아래 4.2에서 제시한다. 그리고 아이셸라의 구체적인 번역전략을 응용하여 제주도 무속신화 번역 사례를 아래 5장에서 제시한다.

4. 연구 방법

4.1. 원천 텍스트: 진성기의 강을생 구연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천텍스트는 진성기가 1959년도에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출신의 여자 심방(무당) 강을생(당시 70세)의 구연을 채록한 것이다(진성기 1980). 본 구연본을 채택한 이유는 모든 중요 화소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 이본들 중에 가장 내용이 풍부하며, 이야기의 묘사와 표현이 구체적이고, 제주어와 속담을 통한 제주의 지역성과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김선희 2003: 127; 박경신 1986: 285; 최영숙 2002: 29). 이에 덧붙여 진성기(1980) 텍스트의 구조는 다른 이본들과 달리 행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 신화가 노래로 구연되는 만큼 행을 나누어 짧은 문장으로 끊어 주는 문체의 사용은 독자의 가독성을 높여 줄 것이다. 특히, 총 200페이지가 넘는 장편이면서 대부분 제주어로 쓰여 있는 글을 쉽게 읽는 데 도움이 된다.

4.2. 즈청비 신화 속 특정 문화요소 범주

앞서 선행연구(Newmark 1988, 2010; 이근희 2003; 양창현 2015)의 특정 문화요소범주를 집목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변형된 범주를 설정하였다. 범주는 ‘생태, 물질문화, 사회문화, 정신문화, 공공문화, 관용구/관습적 표현/고유명사와 호칭, 몸동작과 버릇을 포함한다. 그리고 영어권 목표 문화와 다른 즈청비 신화 속에 나타나

는 제주도의 특정 문화요소의 예를 함께 제시한다. 먼저, 제주도의 전통 모자인 ‘정동벌립’을 만드는 데 사용되던 덩굴인 ‘꼭정동’. 대문 앞에서 말을 탈 때 디디는 돌인 ‘물광돌’, 아기에게 입혔던 ‘벗디창옷’, 물을 나를 때 사용한 ‘물허벅’, 샘물이 나오는 곳의 돌 위에서 하던 ‘스답’,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꽃이 있다고 믿었던 ‘서천고장밭’, 쌓은 나무의 단을 세는 ‘동’, 자신과 친한 사람의 편의를 봐 준다는 ‘잔 좁은 풀은 안터레 휘여’라는 속담, 한꺼번에 많이 들어보는 것을 나타내는 ‘괄락괄락’ 등은 모두 제주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표 4. 자청비 신화 속 특정 문화요소의 예)

범주	특정 문화요소
생태 (식물, 동물, 산, 바람, 고원, 인간 등)	식물: 꼭정동(취맹대이 덩굴), 새(띠, 삐비), 돛박고장(동백꽃), 도실낭(복숭아 나무) 바다 생물: 구제기(소라), 메역채(미역채) 동물, 새, 곤충: 뭍(말), 감음 암쇠(검은 암소), 순작이(매추리/매 추라기) 산: 할로영산(한라산) 인간: 구살(의무, 월경/생리)
물질문화 (음식, 의복, 교통, 집, 도시 등)	집: 물광돌(말을 탈 때 디디는 돌), 지새집(기와집) 음식: 즈배기(수제비), 개미장(된장) 의복: 벗디창옷(배넛저고리), 노봉옷(바짓가랑이가 터진 옷) 물건: 물허벅(물동이)
사회문화 (일과 여가 등)	일: 스답(빨래)
정신문화 (종교, 무속신앙, 예술, 관습 등)	무속신앙: 서천고장밭(서천꽃밭), 칼손도리(칼손다리) 종교: 수륙(제), 원천강, 생불(아기/부처) 관습: 코시(고사)
공공문화(정치, 행정, 상업, 교육, 기관, 조직, 절차, 단위, 개념)	단위 명사: 동(단), 허벅(동이) 도량형 단위: 석, 근, 바리, 말, 홉, 되
관용구, 관습적 표현. 고유명사 (인명, 지명 등)와 호칭	속담: 잔 좁은 풀은 안터레 휘여 (잔 잡은 팔이 안쪽으로 휘다) 즈청비, 김진국, 상제님

7) 괄호 안의 명칭은 표준한국어이다.

몸동작, 버릇 (침 빨기 인사, 손짓)	몸동작: 팔락팔락(벌컥벌컥), 위랑자랑(설렁설렁)
--------------------------	-----------------------------

위의 특정 문화요소의 예들은 제주도 문화의 특색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번역하기 위해 어떠한 번역 전략과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적절성과 의의 그리고 장·단점을 아래에서 논의한다.

5. 세경본풀이 속 특정 문화요소의 번역 전략과 기법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아이셀라(1996: 60-64)의 번역 전략과 기법에 따라 각 문화요소 번역 사례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5.1. 보존

5.1.1. 반복

반복은 앞서 3.2.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천어의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세경본풀이 원천 텍스트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는데, 한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ST]

신산만산 **할로영산**
 들어간 보난
 큰 폭낭이 십디다.

[TT]

As I made my way into
 the sacred mountain, **할로영산**,
 a towering hackberry tree came into view.

할로영산은 제주도의 한라산을 의미한다. 제주도 무속에서 한라산은 신들의 탄생지이면서 거처로 신성하고 영험한 공간이다. 또한 제주도를 수호해 주는 신적

www.kci.go.kr

송배의 대상이다(임재영 2024: 40). 그만큼 중요한 장소로, 한글을 이용해 목표 텍스트에 ‘할로영산’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원천어가 로마자를 사용하는 영어인 경우, 독자가 그 맥락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영어를 접하는 것이 쉬워진 국제 사회에서 유용한 번역 기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가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번역가는 목표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방법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5.1.2. 표기 조정

신화 번역에서 다양한 제주의 특정 문화요소들을 제주어의 발음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하여 이국적인 면을 살릴 수 있다.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즈청비 부모의 이름인 ‘짐진국’과 ‘조진국’을 ‘Jim Jinguk’과 ‘Jo Jinguk’으로 음역할 수 있다. 이때 성과 이름의 위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대신에 성과 이름을 띄어쓰기로 구분할 수 있다. 또는 ‘Jinguk Jim’ 또는 ‘Jinguk Jo’로 이름, 성 순으로 표기하여 목표 문화에 더 친숙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ST]

웃녘인 짐진국이 살고
알녘인 조진국이 살고
(진성기 1980: 29)

[TT]

Jim Jinguk lived in the upper village,
and **Jo Jinguk** lived in the lower village.

아래 제주도의 특정 문화요소인 ‘봇디창옷’은 국립국어원(n.d.)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botdichangot*’으로 표기할 수 있다. 또한 [보띠]에서 영어에 없는 된소리는 표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사에 따라 McCune-Reischauer 또는 Yale Romanization 방식을 사용하여 한국어의 로마자 규정이 다를 수 있다.

[ST]

어머님은
훈 슌 적이

붓디창옷을 지여 입지고
(진성기 1980: 34)

[TT]

My mother,
when I was one year old,
made me *botdichangot*, and dressed me.

제주도 외 지역에서는 주로 ‘배넛저고리’(a newborn gown)라고 부르는 ‘붓디창옷’은 ‘붓디창옷, 붓엿창옷, 베창옷, 베옷, 붓뒤적삼, 삼칠일옷’ 등으로도 불린다. 붓’은 제주어로 ‘자궁, 태반, 탯줄’ 따위를 뜻하고, ‘뒤(디)’는 자궁에서 분리된 다음의 시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창옷’은 ‘홀옷’을 의미한다. 즉 말 그대로라면 ‘자궁에서 분리된 후 입는 홀옷’으로 ‘a single-layered gown worn after separation from the womb/after birth’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제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고 3일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목욕을 시키고 생애 첫 옷을 지여 입히는 데 그것이 바로 붓디창옷이다. 그리고 21일간 입히는 것으로 ‘삼칠일옷’이라고도 한다. 남자 아기용은 긴소매 여자아기용은 반소매이다. 제주에서 붓뒤창옷에 대한 믿음으로 a) 인간으로 반드시 입어야 하는 첫 예복이며 없는 경우 빌려서라도 입혀야 하는 옷 b) 피부병을 예방 시키고 c) 장남이나 장손이 입었던 옷은 재수가 좋고 d)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강정식 외 2010: 211-212; 고부자 1988: 197-199; 송상조 2007: 352).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신화 속 주인공의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게 아기를 키웠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붓디창옷은 문화적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기조정 외에 아래에서 제시하는 텍스트 내적 해설(5.1.4) 또는 텍스트 외적 해설(5.1.5)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의미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1.3. 언어적 번역

원천 텍스트의 명시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아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이 그림다’를 ‘I miss water’로 번역할 수 있다. 제주어에서 ‘물이 그림다’는 ‘목이 마르다’, 즉 ‘thirsty’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그러나 이를 문자 그대로 ‘I miss

www.kci.go.kr

water’로 번역하면, 목표어에서는 정확한 ‘thirsty’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은 원천 텍스트의 이국적인 느낌을 유지하고 시적인 요소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I miss water’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ST]

정이웃인 정수남아

물이 그립다.

(진성기 1980: 115)

[TT]

Cold-hearted Jeong Sunam,

I miss water.

제주는 화산섬으로 물이 매우 귀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많은 마을이 해안가의 용천수 부근에서 형성되었다. 용천수에서 멀리 사는 여성들은 물허벅(물동이)을 이용해 아침저녁으로 물을 길어 날랐다.

5.1.4. 텍스트 외적 해설

텍스트 이외에 추가 해설을 삽입하는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국내의 축적된 연구를 해외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아래 [footnote]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역가는 추가 자료 조사를 통해 목표 문화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수륙’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각주에서 제공할 수 있다.

[ST]

우리안틴 돈이 심에

영급흔 산으로 강

수륙을 드러도

생불을 볼 수가 쉽네다.

(진성기 1980: 37)

[TT]

As we have money,

if we go to an auspicious mountain temple,

www.kci.go.kr

and hold a *suryuk*,
we can be blessed with a child.

[footnote]

수륙재(水陸齋)는 물과 육지에서 떠도는 신령과 귀신을 포함한 모든 영혼과 중생을 위해 음식을 공양하며 치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의례이다(강봉수 2003; 구미래 외 2017; 국광희와 저승석, 2019: 117). 이러한 불교적인 색채가 제주도 무속에 아주 깊이 융합되어 있다는 것이 제주도 무속의 한 특징이다.

위의 각주는 ‘수륙’에 관한 해설로, 본 연구자가 조사한 내용이다. 이러한 해설은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독자를 목표로 할 경우에 적절하다. 수륙재(= 수륙 불공)는 일반적으로 불교적인 의례이지만 제주도에서는 6개의 일반신 본풀이에 등장한다. 먼저 차사본풀이에서는 오래 살 수 있도록 부처에게 빌기 위해 수륙을 들인다. 그리고 5개의 본풀이에서는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 수륙을 드린다고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 무속에서 중요한 의례라고 볼 수 있다. 세경본풀이(즈청비), 초공본풀이(자지명왕아기씨), 이공본풀이(원강아미), 칠성본풀이(칠성), 지장본풀이(지정)에서는 수륙재를 드리고 딸을 얻고, 이공본풀이에서는 아들(사라도령)을 얻는다(강봉수 2003: 36; 문무병 2015b; 좌혜경과 조현설 2019: 16-50).

5.1.5. 텍스트 내적 해설

텍스트 내적 해설은 앞서 외적 해설과 달리 독자가 빠르게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 ‘산’으로 수륙을 드리러 가는 것은 산에 있는 ‘절’에 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temple’을 추가하여 원래 의미를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다. 생불(生佛)은 불교에서 살아 있는 부처라는 뜻이지만, “무속에서는 생명 또는 자식의 의미”로 쓰인다(현승환 1997: 11). 그래서 ‘생불을 보다’는 ‘자식을 보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를 통해 자식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한자를 이해하는 학습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suryuk*(水陸)과 *saengbul*(生佛)처럼 한자를 추가할 수 있다.

[ST]

우리안틴 돈이 심에
영급흔 산으로 강
수륙을 드러도

www.kci.go.kr

생불을 볼 수가 쉽네다.
(진성기 1980: 37)

[TT]

As we have money,
if we go to an auspicious **mountain temple**,
and hold a **suryuk (水陸) ritual**
we can be blessed with **saengbul (生佛), a child**.

또한, 아래 예에서 ‘구실’은 ‘의무’라는 의미의 제주어지만, 그 의미는 즈청비가 칼선다리(작두)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발끝을 칼에 베인 후에 생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생리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a five-day obligation for women from birth’로 번역하는 대신에, ‘At birth, a woman takes on a five-day obligation: the ritual of bleeding.’으로 텍스트 내적 해설을 덧붙일 수 있겠다.

[ST]

예즈론 낭민
흔들에 오일 닷쇠
구실이 쉽네다.
(진성기 1980: 181)

[TT]

At birth,
a woman takes on
a five-day obligation:
the ritual of bleeding.

그리고 역새와 수수의 붉은 빛깔도 즈청비의 발끝에서 난 상처에서 생긴 피가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한다(진성기 1980: 181). 즉 번역가는 문맥상 드러나는 숨은 뜻을 해석하고 이에 맞는 번역을 해야 한다.

5.2. 대체

5.2.1. 동의어 사용

반복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해 동의어를 사용할 수 있다. 세경본풀이 전반부에 즈청비의 부모가 아이를 얻기 위해 ‘수륙들이다’라는 표현이 10번 이상 등장한다. 그 이유는 즈청비의 탄생이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모가 절에서 제물을 바치고 수륙을 들여야 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hold a suryuk (水陸) ritual, perform a ritual, make food offerings to comfort wandering spirits on land and in water’ 등으로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

5.2.2. 제한적 일반화

목표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원천 텍스트보다 좀 더 쉬운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신화에 등장하는 절 이름인 ‘동개남이 은증절’을 ‘관음사(Gawneumsa)’⁸⁾로 대체할 수 있다.

[ST]

“대스님아, 대스님아!

어느 절 대습니까?”

“우리 절은 동개남이 은증절 됩네다.”

(진성기 1980: 38-39, 40-41)

[TT]

“*Daesaw-nim, Daesaw-nim.*”⁹⁾

Which temple are you from?”

“I’m from *Gawneumsa.*”

‘동개남이 은증절’은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있는 절, ‘관음사’를 부르던 옛말이

-
- 8) 제주도의 관음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제 23교구 본사로 한라산 650미터에 자리 잡고 있다. 이병철과 한기완(2012: 12-13)에 의하면 관음사는 고려 문종(1046-1083) 시기에 처음 세워졌다는 속설이 있으며 여러 제주 설화와 민담에서 ‘괴남절, 개남절, 동괴남절, 은증절’이라고 불리운다.
 - 9) 국립국어원에서는 아래아를 위한 로마자 기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주어에는 아래아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Yang et. al.(2019)이 사용한 ‘aw’를 차용한다. ‘대스’는 ‘대사’의 제주어 발음이다.

www.kci.go.kr

다(이병철과 한기완 2012: 12). 현재는 관음사로 더 알려져 인터넷과 각종 관련 자료에서 독자가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5.2.3. 절대적 일반화

번역가가 좀 더 쉬운 단어나 표현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인 일반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래 신화 속 ‘코시’가 그런 경우이다. 제주도에서는 말을 타고 멀리 떠나기 전에 음식을 장만하여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는데, 그것을 ‘코시’ 또는 ‘물머리 코스’라고 불렀다(강정식 2022). 이 외에도 다양한 목적의 코시가 있었는데, 이때 음식을 떼어서 잡신에게 던져준다. 따라서 ‘food offerings’로 일반화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ST]

“큰 마누라 탕 땡길 땡
이 몰 우티 **코시**가 십디다.”
(진성기 1980: 108)

[TT]

“When the lady rode this horse,
she placed **food offerings** upon its back.”

5.2.4. 토착화

토착화는 독자가 빠르고 쉽게 번역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 소금의 ‘닷되’를 리터로 환산하고(1되 = 1.8 리터) 다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였다(Aqua-Calc 2022).

[ST]

상제님 먹을 밥으랑
츄ㄴ르 **닷되**에
소금 **닷되** 놓앙
범벅을 홉서.
(진성기 1980: 106)

[TT]

For your lunch, my lady,

please make *beombeok*
with **20 kilograms** of rice powder
and **20 kilograms** of salt.

위의 번역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요리에서 사용되는 cup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리터를 10컵 정도라고 한다면, ‘50 cups of rice powder and 50 cups of salt’라고 번역할 수 있다.

5.2.5. 자율적 창작

번역가가 창의적으로 원천텍스트를 번역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목의 자율적 창작 사례를 제시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천 텍스트의 제목인 “남국의 무속서사시 -세경본풀이-”(진성기 1980)를 “*Jawcheongbi: The Korean Goddess of Agriculture*”로 번역할 수 있다.

[ST]
남국의 무속서사시
-세경본풀이-

[TT]
Jawcheongbi: The Korean Goddess of Agriculture

진성기는 제목에서 제주를 남국(南國)으로 표현하고, 무속서사시로서의 세경본풀이를 강조했다. 하지만 목표 문화권 독자들의 이해와 관심을 끌기 위해 주인공의 이름을 넣고 여신임을 강조하여 창작할 수 있다. 또한 지역명인 제주를 삽입하여 ‘The Jeju Goddess of Agriculture’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5.2.6. 생략

의미 전달에 필수적이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 번역가는 생략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아래의 신화 내용 중 ‘곡숙놀에 삼수세기 올란’에서 ‘삼수세기(덩굴) 올란(올랐다)’은 난가리(곡숙놀)가 많아서 덩굴이 덮일 정도라는 표현이지만 이미 주인공의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석하거나 번역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삼수세기(덩굴) 올란’을 완전히 삭제하고 곡숙놀만 ‘stacks of grain stalks’으로 번역할 수 있다.

www.kci.go.kr

[ST]

고대광실 높은 집에
남산북답 싸인 밭에
유기제물도 그득하고
곡속놀에 삼수세기 올란
하근 게 하셔도
서리가 웃언
호호 근심하는구나
(진성기 1980: 29)

[TT]

They owned a grand house,
bountiful fields,
plenty of brassware,
great wealth,
and **stacks of grain stalks.**
However, lacking a child,
they couldn't shake off their unhappiness.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경본풀이(즈칭비 신화)의 영문번역 사례를 통해 제주도 지역의 ‘특정 문화요소’를 파악하고 범주화한 후 이를 어떠한 번역 전략과 기법으로 옮길 수 있는지 논하였다. 먼저 신화 속에 나타나는 제주도 지역문화의 강한 특색을 현재 문화번역이론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아이셀라(1996)와 뉴마크(1988, 2010)의 특정 문화요소 개념을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생태, 물질문화, 사회문화, 정신문화, 공공문화, 관용구 및 관습적 표현 그리고 고유명사, 몸동작 및 버릇으로 범주화시켰다. 그리고 독특한 문화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존과 대체 전략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번역 사례로 제시하였다.

번역가의 주체적인 판단 하에 제주의 이국적인 요소를 강조할 경우, 보존전략을 채택하여 표기 조정, 언어적 번역, 텍스트 외적·내적 해설을 추가하는 번역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편 번역가가 목표 문화 즉 영어권 독자에게 더 친근한 번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전략을 세우고, 동의어 사용, 제한적 또는

일반적 일반화, 토착화, 자율적 창작, 생략 등과 같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번역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이러한 대체 전략을 사용할 경우, 원천 문화 요소가 삭제되거나 단순화될 수 있지만, 독자의 이해와 가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존 전략 중 반복기법을 사용할 경우, 한국학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독자라 하더라도 생소한 무속신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한글을 읽지 못하는 독자의 경우 가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고 의미를 전달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기법에 대해서는 번역가의 의도에 따라 이국적인 면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가 좀 더 친숙하게 읽을 수 있도록 대체 전략에 집중할 것인가를 번역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번역 전략 및 기법과 다른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 텍스트 번역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번역가는 단순히 텍스트를 언어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맥락과 독자 반응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텍스트의 원천 문화 요소를 보존하면서도 목표 문화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다양한 전략과 기법을 혼용하여 목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려면 번역가는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의 사회, 신앙, 문화, 역사, 환경 등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무속 신화의 영문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번역 사례를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다만 번역 전략별로 단일 사례만 제시하였고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특정 문화 요소들의 전반적인 양상을 양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다. 또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특정 문화 요소를 파악하고 선택, 분류한 점과 실제 독자의 반응을 조사하지 못한 연구 방법상 한계도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에게도 낯선 세경본풀이와 같은 무속 신화가 그리스·로마 신화처럼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알리는 동시에, 무속 신화의 학문적 및 문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봉수. (2003). 「제주무속에 나타난 도덕질서-일반신 본풀이의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4: 29-83.
- 강소진. (2018). 「제주도 무가무속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연구』 24: 29-83.
- 강정식·강소진·현혜경. (2010). 『한국인의 일생의례: 제주도』 국립문화재 연구소
- 고부자. (1988). 「제주도민의 초생아복과 그에 나타난 의식」.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21: 193-207.
- 구미래·윤소희·이애현. (2017). 『진관사 수륙재』 서울: 민속원.
- 국광희·정승석. (2019). 「수륙재의 상징적 소재에 대한 고찰」. 『불교연구』 50: 115-154.
- 권병철. (2016). 「양반전의 문화 특정적 요소 번역기법 소고」. 『번역학연구』 17(5):33-51.
- 권오숙. (2014). 「한국 문학 텍스트 영역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의 경향 연구」. 『동번역학연구』 18(3): 263-289.
- 김선희. (2003). 「세경본풀이의 재인식」. 『영주어문』 5:125-137.
- 김순이. (2002). 『제주의 여신들 2: The goddesses of Jeju Island』 (한진이 번역) 제주: 제주문화.
- 김천향. (2021). 「『홍루몽(紅樓夢)』 현대 한글 번역본에 나타난 음식명 번역 양상」. 『T&I REVIEW』 11(1): 7-34.
- 김현선 외. (2020). 『제주신화 본풀이를 만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 김현선. (2023). 「제주무가 필사 채록의 세 전형 - 장주근(1925-2016) 현용준(1932-2016) 진성기(1936-) -」. 『한국무속학』 6:48-71.
- 문무병. (2001). 『제주도근곳자료: 1994년 동김녕 중당클 근곳 자료집』. 제주도(사)제주전통문화연구원 소.
- 박경신. (1986).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 -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6: 283-303.
- 박원배. (2009). 「제주도 물 문화의 소고」. 『제주발전연구』 13: 227-244.
- 송상조. (2007). 『제주말 큰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양영수. (2020). 『제주 신화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 연구: 그리스 신화와의 비교』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양창현. (2015). Gutt의 적합성 번역이론에 기반한 문화특정어 번역 연구- 「순이 삼촌」 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성찬. (1995). 「제주 마을 조사의 현황과 실제」. 『향토사연구』 7: 185-193.
- 오윤선. (2010). 「<단군신화(檀君神話)> 영역자(英譯者)의 시각(視角) 일고찰」. 『국제어문』 48: 67-100.
- 오창명. (2014). 『18세기 초 제주도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탐라순력도 탐색』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이근희. (2003). 「문화와 밀접한 상관계의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4(2): 5-26.
- 이병철·한기완. (2012). 『제주사찰에서 나를 찾다』 제주불교 신문.
- 임재영. (2024). 「한라산의 신성성에 대한 연구」. 『제주도연구』 62: 21-49.
- 임재해. (2006). 「굿 문화사 연구의 성찰과 역사적 인식지평의 확대」. 『한국무속학』 11: 67-146.
- 장주근. (200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 역락.

- 조영배·강정식. (2000). 『한국음악 제 31 집: 한국의 굿 제주도 칠머리당굿』 국립국악원.
- 조흥윤. (2004). 『한국의 샤머니즘』 서울: 가람기획.
- 좌혜경·조현철. (2019). 『제주신화<일반신본풀이> 여신 관련 텍스트 분석』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좌혜경·최원오. (2018). 『제주신화<일반신본풀이>의 문화사적 가치연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진성기. (1980). 『남국의 무속서사시-세경본풀이-』 서울: 정음사.
- 최영숙. (2002). 『세경본풀이』의 구조와 문학적 의미.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학진흥사업단. (2021). 『2021년도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술번역사업」 신청요강』 한국학중앙연구원.
- 허남춘. (2011). 『제주도본풀이와 주변신화』 서울: 보고사.
- 현기영. (1978). 『순이삼촌』 서울: 창작과 비평.
- 현기영. (2008). 『Aunt Suni』 (송중도 역). 제주: 각.
- 현기영. (2012). 『순이삼촌 Sun-i Samch'on』 (이정희 역). 도서출판 아시아.
- 현기영. (2021). 『Uncle Suni (Uncle Suni)』 Maryse Bourdin & KyunghéeKim(역), Paris: Atelier Des Cahiers.
- 현승환. (1997). 「생불꽃 연구」. 『백록어문』 13(2): 9-31.
- 현용준. (1982). 「제주도무신의 형성」. 『탐라문화』 1: 1-26.
- 현용준. (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서울: 집문당.
- 현용준. (2002). 『제주도 무속신화 연구』 서울: 집문당.
- 현용준. (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제주: 각.
- 현평효 외. (2009). 『제주어 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황인순. (2015). 「본풀이적 세계관의 현대적 변용 연구: 웹툰 <신과함께> 와 <차사본풀이> 의 비교를 통해」. 『서강인문논총』 12: 353-384.
- EBS 교육방송. (2019). 『2020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EBS.
- Aixelá, J. F. (1996).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In Alvarez, R and M. Carmen-Africa Vidal (eds.),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2-78.
- Aljabri, S. (2020). Translation of culture-specific items from English into Arabic in Ernest Hemingway's *The Old Man and the Sea*. *SKASE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13(2): 1-21.
- Amenador, K. B and Wang, Z. (2022). The translation of culture-specific items (CSIs) in Chinese-English Food Menu Corpus: A study of strategies and factors. *SAGE Open* 12(2): 1-17.
- Bassmet, S. (2007). Culture and translation. In Kuhlweiczak, P. and K. Littau (eds.), *A companion to translation studies*(Vol. 34),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3-23.
- Kuleli, M. (2020). Culture specific items in literary texts and their translation based on "foreignization" and "domestication" strategies. *RumeliDE Dil ve Edebiyat Araştırmaları Dergisi*, (Ö7), 617-653.
-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rentice Hall Europe.
- Newmark, P. (2010). Translation and culture. In Lewandowska-Tomaszczyk, B. and T. Marcel (eds.), *Meaning in Translatio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71-182.
- Ryu, S. (2016).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Myth "Segyeong Bonpuri". MA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Venuti, L. (ed.). (1992). *Rethinking translation: Discourse, subjectivity, ideology* (Vol.2).

London: Routledge.

Westfall, C. L. (2016). The Human one? A Controversial CEB Translation Choice. *Open Theology* 2: 895-906.

Yang, C., Yang, S., and O'Grady, W. (2019). *Jejueo: The Language of Korea's Jeju Islan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Yebra, V. G. (1983). *En torno a la traducción. Teoría. Crítica. Historia*. Madrid: Gredos, 315-329.

Issy Yuliasri, I. and Allen P. (2014) Foreignizing and Domesticating Harry: An Analysis of the Indonesian Translation of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T&I Review* 4: 127-146.

[인터넷 자료]

강정식. (2022). 『말머리 고사』 디지털제주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jeju/toc/GC00700683\(2024.09.10.검색\)](http://jeju.grandculture.net/jeju/toc/GC00700683(2024.09.10.검색)).

국가유산청. (n.d.). 서울새남굿.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snl=Y&ccbaCpno=1271101040000\(2024.10.10.검색\)](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1_1_1_1&snl=Y&ccbaCpno=1271101040000(2024.10.10.검색)).

국립국어원. (n.d.).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https://korean.go.kr/komorms/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4#a\(2024.10.11.검색\)](https://korean.go.kr/komorms/regltn/regltnView.do?regltn_code=0004#a(2024.10.11.검색)).

문무병. (2015a). 『지옥에 빠지지 않고 극락왕생하길』. 제주의 소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69947\(2024.09.20.검색\)](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69947(2024.09.20.검색)).

문무병. (2015b). 『새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행한 여신』.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67940\(2024.09.11.검색\)](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67940(2024.09.11.검색)).

문예연감. (n.d.). 『문학』 [https://www.arko.or.kr/yearbook/?subPage=210&volume=2020&genre=%EB%AC%B8%ED%95%99\(2024.11.20.검색\)](https://www.arko.or.kr/yearbook/?subPage=210&volume=2020&genre=%EB%AC%B8%ED%95%99(2024.11.20.검색)).

제주일보. (2018). 제주방언, ‘삼춘’. [https://www.jeju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486\(2024.10.12.검색\)](https://www.jeju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486(2024.10.12.검색)).

Aqua-Calc. (2022). Calculate the weight of compounds and materials per volume. [https://www.aqua-calc.com/calculate/volume-to-weight\(2024.09.09.검색\)](https://www.aqua-calc.com/calculate/volume-to-weight(2024.09.09.검색)).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2022a). Jacheongbi. [https://planetarynames.wr.usgs.gov/Feature/15666\(2024.08.10.검색\)](https://planetarynames.wr.usgs.gov/Feature/15666(2024.08.10.검색)).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2022b). Target: Ceres. [https://planetarynames.wr.usgs.gov/Page/CERES/target\(2024.07.10.검색\)](https://planetarynames.wr.usgs.gov/Page/CERES/target(2024.07.10.검색)).

UNESCO. (n.d.).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https://ich.unesco.org/en/RL/jeju-chilmeoridang-yeongdeunggut-00187\(2024.07.06.검색\)](https://ich.unesco.org/en/RL/jeju-chilmeoridang-yeongdeunggut-00187(2024.07.06.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3 November 2024; revised on 3 December 2024; and accepted on 9 December 2024.

Author's email addresses

syang001@jejunu.ac.kr

About the author

Sejung Yang i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for Humanitie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endangere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pedagogy, and translation.

www.kci.go.kr